

# 푸르름 피어난 청춘의 계절 '즐거움 그 순간'

## 21일까지 소암미술관 청년작가전

김동아·박정일·새나·이다에 참여  
일상 묘사한 동화적 이미지 눈길  
반려동물·캐릭터 등 화폭에 등장

여름, 청춘의 계절이 펼쳐진다. 소암미술관은 올해 세 번째 전시로 청년작가 기획초대전 '즐거움 그 순간'을 오는 21일까지 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동아, 박정일, 새나, 이다에, 네 명의 작가와 함께 생의 순간에서 푸르름을 맞이한 풍경을 그린 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부류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의 청년작가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사건들을 다양한 소재와 캐릭터를 통해

녹여낸 작품들을 소개한다.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아름답고 유쾌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조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김동아 작가는 즐거움을 일상의 소소함에서 찾고 있다. 특별한 무엇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와 강아지, 꽃, 자전거 타는 모습들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한 기억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부드럽고 온화한 한국화 특유의 색채로 일상의 이미지를 평온하게 그려낸다.

박정일 작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지친 자신을 반겨주는 반려동물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 동물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화폭 속 의인화된 동물은 반려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반려동물을 반기고, 함께 휴식을 취하고, 음악 즐기는 유쾌한 동화와 같다.

새나 작가는 즐거움을 단순히 지금, 이 순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의 순환까지 확장한다.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고리를 나타내는 '깨알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공존·환경보전·생물의 다양성을 유쾌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다에 작가는 즐거움을 부귀와 복으로 표현한다. 복과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와 모란꽃을 통해 순간의 즐거움을 포착한다. 예로부터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청정함과 생명력을 뜻하는 연꽃과 연꽃

씨앗,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복돼지를 차용해 강렬한 색채로 행복한 유토피아의 세계를 꿈꾼다.

제2전시실에서는 소암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상설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양동호 소암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노년들이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결핍, 그리고 거기에서 야기되는 불안정한 감정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개관한 소암미술관은 공직자로서 깊은 예술적 영혼을 겸비하였던 서예가 소암 김영춘의 뜻을 기리고자 가족들이 김영춘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시공간으로 개방한 곳이다. 남구 중앙로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21일까지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

### 대상 수상자에 최대 2000만원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거나 출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 및 기타 자격제한은 없다. 신진작가상은 만35세 이하로 제한해 선정한다.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 이력이 있는 작가도 수상 5년 이후라면 재응모 가능하다. 출품료는 없다.

접수방법은 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안내순서에 따라

자료를 업로드 하면 된다. 학력 및 약력 사항, 작품론, 전시계획안, 작품 이미지 및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1차 포트폴리오 및 전시계획안 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및 작품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 1명, 신진작가상 1명을 선정하며 최종 수상작가 발표는 오는 9월 4일 공개된다. 대상 수상자는 1500만원, 신진작가상 수상자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개인전 개최시, 5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갤러리 데스크(062-360-1271)로 문의. **도선인 기자**



김경애 작 '선비'



공은숙 작 '무유심'



김종만 '나주소반'

## 한옥 '대청' 주제 공예 3인전... 4~10일 무등갤러리

한옥의 중심 공간인 대청(大廳)을 모티브로 한 공예3인전이 4일부터 10일까지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대청이라는 공간에서 사용되었던 차 도구, 소반 주병, 다반 등의 기물들을 현재의 실생활에 적용한 다양한 현대적 기물들이 전시된다.

2024무등갤러리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돼 열리는 이번 '대청 공예 3인전'에는 김

경애(이플도에공방 대표), 공은숙(화수목도 도예공방 대표), 김종만(우진공예 대표)씨가 참여한다.

공예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3인은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전라남도미술대전 등을 통해 공예가로서 자리를 잡은 뒤, 지역 및 국내 각종 초대전 참여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신진작가들이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들은 한옥이라는 과

학적이면서 예술적인 모습들을 상기시키며 전시장을 찾는 관람자에게도 벗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어보는 즐거움을 떠올리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김경애 작가는 "대청이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것처럼 일상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과거의 공간적인 시간들을 한 부분이나마 가져와서 이 시대에서 잠시나마 느끼고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보내는 '73일간의 썸머'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9월 1일까지 여름방학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과학문화 행사·강연을 연이어 개최하는 '73일의 썸머'를 이어간다.

먼저 '공룡'을 주제로 한 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를 9월 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지구의 탄생 과정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15여종의 공룡을 소개한다. 생동감 넘치는 공룡 세상이 펼쳐지며, 공룡 퍼즐, 공룡 그리기, 화석 발굴체험, 호박화석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

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 '다이노 클래스'에서는 △나만의 공룡시계 만들기 △공룡 입체공룡 만들기 △공룡 LED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달 29일에는 지질학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이 직접 '지구 46억년 역사 : 사라진 생물들'이라는 주제로 상상속에서 강연을 연다.

오는 26일부터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2024 물과학체험장'이 운영된

다. 광주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잡은 '물과 학체험장'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 지난해 대비 이용요금을 인하했다.

8월 23일에는 성인들을 위한 '제8회 성인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술에 담겨있는 과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칵테일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다양한 선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 관람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제공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첨, 경품을 증정한다.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더위 기간 방문객을 위해 선착순으로 부채 기념품을 5000개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 소문내기 및 방문후기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 무료 입장권과 모바일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여름방학 특별주간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7월 매주 주말 여름밤 '광주상설공연' 팡파르

### 시립오페라·극단 하이라이트 무대 소리화·황채은 무용단, 신'춘향전'

2019년 첫 공연 이후 1000회를 넘긴 '광주상설공연'이 7월에도 매주 주말 오후 5시 서구 치평동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 선정작과 시립예술단의 오페라하이라이트, 시립극단의 연극 무대 등이 준비돼 있다.

7월 토요일상설공연은 시립오페라단과 시립극단의 무대로 준비된다. 첫 무대인 오는 6일에는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1880년대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신비한 묘약으로 둔갑한 싸구려

와인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남녀 주인공의 진정한 사랑이 이뤄지는 희극 무대다.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해설로 남녀노소 누구나 오페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된다.

13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시립극단이 3주 연속으로 공연한다. 가족극 '안녕, 프랑켄슈타인' 하이라이트 무대로 등장인물인 프랑과 사막 여우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펼친다. 온 가족이 함께 무대를 보고 즐기며, 스토리 속에 담긴 메시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무대다.

매주 일요일에는 2024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준비돼 있다. 민간예술단체 판소

리에술단 소리화와 황채은 무용단이 함께 하는 '춘향, 그 후...' 작품이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춘향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는 춘향의 모습과는 다른 춘향의 모습을 그려낸다. 춘향이의 악몽, 몽롱을 그리워하는 춘향이의 모습 등 새로운 시각의 춘향전이 펼쳐진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 3)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사전 예매)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